

# 인문·문화·예술 프로그램 753개 운영

## ■ 광주시 2022년 도서관발전 계획

사회적 독서프로그램 218개 진행  
오디오북 등 전자서비스 확대  
생활문화동호회 46개 운영  
2023년까지 공공도서관 9개 건립



광주 공립도서관은 2022년 인문과 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은 운암도서관에서 2020년 열렸던 '리탄공예' 장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는 생활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가운데 다양한 온라인문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디지털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과 정보, 문화가 교류되고 통합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 같은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들자면 도서관을 빼놓을 수 없다. 도서관은 다양한 문화정보 서비스를 비롯해 복합문화공간을 구현하는 최적의 공간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화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022년 광주 공공도서관은 인문, 문화, 예술 프로그램 753개를 26개 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통·토론행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도 26개 도서관에서 218개가 진행된다. 전자책을 비롯한 오디오북, 전자저널 서비스도 15만1942종으로 확대되는 등 이용자 정보제공 접근의 편의성도 확대된다.

이 같은 사항은 광주시 도서관정비서비스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도서관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시민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다. 정보 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인적, 물적 인프라 조성과 서비스 확장을 도모해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제고한다는 의미다.

2022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은 모두 4대 전략

12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은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753개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 218개 사회적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도 강화된다. 도서관 이용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장서개발 확충은 물론 환경개선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도 확대된다. 가치 있는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선별하는 큐레이션을 제공해 효율적인 독서와 문화 행사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은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지역 도서관 협력 및 지원과 아울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문화동호회를 16개관에서 46개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대 흐름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동아리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

라인 플랫폼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적극적 정보 복지를 실현하고 정보 불평등 계층의 정보 및 매체 활용 교육을 위한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역할도 중요 과제다.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해 8개 도서관에서 장애인실 등을 운영하고 독서보조기기(22개관) 제공, 점자도서 457권을 비치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독서생활 지원은 물론 누구나 독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은 도서관 협력 체계 강화와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시립도서관과 중국 광저우도서관이 상호 기증품 전시와 자료 교환 등을 매개로 비대면 문화 교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간 도서관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2023년까지 공공도서관 9개(시립 3, 구립 6)를 건립하고 3개 도서관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서 자료도 11만2820권을 확충하며 큰글자도서, 영자도서 등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진도 출신 우송현 김영삼 화백 시인 됐다

## '포스트모던' 신인상

진도 출신 화가가 시인으로 등단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우송현 김영삼(64·사진) 화백. 김 화백은 종합문예지 계간 '포스트모던' 2021년 겨울호 신인 작품상 공모에 '새벽, 차를 마시다', '기상', '단반' 등 3편이 당선작으로 선정돼 시인의 길도 걷게 됐다.

지난 26일 포스트모던문학회(회장 강행원) 주최로 열린 포스트모던 제52호 출판기념회 및 신인상 시상식에서 김 화백은 시부문 작가 인증서와 상장을 받았다. 그는 "시인이란 호칭을 듣게 돼 문인화가로서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간략하게 소감을 밝혔다.

김 화백은 한국화의 대가인 금봉 박행보 선생을 사사했으며 1977년도에 국전 입선으로 화단에 첫



발을 내디뎠다. 문인화가 지니고 있는 사의성을 간결한 함축미와 응축미로 긴장감을 주며 교훈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김 화백은 그동안 개인전 17회를 열었다. 또 국제전 및 아트페어 등 단체전에 500여회 참여했다. 한국문인화연구회 초대회장, 전주세계서예비엔날레 조직위원,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객원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대전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며 서울종로구 인사동에 우송현미술그룹을 운영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강준섭, 안애란, 박주연, 이윤선

# 전남 예술인 4명 국립국악원 개원 기념 유공포상

고(故) 강준섭 전(前) '진도다시래기' 보유자, 안애란 명창 등 전남지역 예술인 4명이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기념 유공 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립국악원이 올해 개원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전통예술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기념 유공 포상' 시상식이 지난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렸다.

이날 대통령 표창을 추서받은 강준섭 명인은 지난 9월 향년 88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강 명인은 진도 출생으로 1970-80년대 '진도다시래기' 복원을

위해 노력했고 '진도다시래기'가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 제81호로 인정되면서 보유자로 지정됐다.

소리꾼 오정해·박애리의 스승인 안애란 명창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나주 출신인 안 명창은 전남도무형문화재 제29-2호 동편제 판소리 '춘향가' 예능보유자이며 제6회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진도문화원 박주연 원장과 국악학자로서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힘쓴 이윤선 문화재단 문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한국학호남진흥원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학생운동' 출간

광주·전남은 의항이라는 정신적 토대를 함께한 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 광주·전남인들은 함께 떨치고 일어나 국난극복을 위해 힘을 보탰다.

일제강점기 지역 학생들은 항일독립 의지를 알리고 숭고한 희생을 통해 의항 호남의 정신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1926년 성진회 결성과 1929년 학생독립운동, 1945년 광복에 이르는 학생들의 끈끈한 저항 정신은 오늘의 현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전득연)은 최근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학생운동'을 출간했다. 판결



문 번역은 박해현 초당대교수, 김승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책은 지난 1928년부터 1945년 6월까지 20여 년에 걸쳐 지역에서 일어난 학생운동 판결문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국역자료집이다. 원문은 국가기록원 소장자료를 토대로 했으며 국가보훈처 전자자료관 자료도 활용했다. 특히 이번 책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조점

한 판결문, 임주홍 진정서를 번역한 내용이 실려 있으며 창씨개명으로 이름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을 각주 처리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국역 자료집은 모두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총설 국역자료집의 특징과 개인별 현황, 출신학교별 인물현황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학제 등을 담고 있다. 2부는 판결문 번역자료가 연대순으로 구성돼 있으며 찾아보기를 수록해 누구나 참조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책에는 본서에 수록된 판결문을 토대로 개인별 현황과 출신 지역별, 출신 학교별 인명을 분류해 학생운동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5·18문학상 신인상·본상 작품 공모

5월 문학의 가능성과 발전을 견인할 5·18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5·18기념재단, 한국작가회의, 계간 '문학들'은 미등단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5·18문학상 신인상을 공모한다. 기성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본상' 작품은 추천 공모를 한다.

신인상 공모 분야는 시, 소설, 아동문학이며 시는 5편 이상 10편 이내, 소설은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다. 아동문학은 동화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동시 5편 이상 10편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아동문학은 동화, 동시 중 한 부문을 선택해 응모 가능하다. 접수는 2022년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받는다. 신인상 당선자는 시 부문 300만원, 소설 부문 500

만원, 아동문학 부문 300만원의 상금과 계간 '문학들'에 게재되며 아동문학 부문은 계간지 '어린이와 문학'에도 수록된다.

5·18문학상 본상은 발행일 기준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 이내 기성작가의 문학저서(시, 소설, 아동문학, 평론)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작가회의 전국지부와 계간 '문학들'의 추천을 받은 100인 내외의 본상추천추천위원과 단행본 출판사 추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본상 당선자에게는 10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심사위원은 신인상, 본상 별도 구성되며 시상식은 2022년 5·18 행사기간 중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062-360-053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곤충사육장 + 태양광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